

活 있고  
快 適 한  
漁 港 漁 村  
建 設

會 訓  
創 奉 誠  
意 仕 實

# 漁 港 消 息

발행경 孫 井 植 韓 國 漁 港 協 會  
편집인 金 在 克 特 殊 法 人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 在 克 서울특별시서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 146 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2月 25日 (金曜日) (1)

## 어항시설공사 본격 착수키로 계속투자 25 유지보강 32개항

### 올해 항별사업비 배정 총 1,411억원 규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매물도 등 57개 어항에 모두 1,4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어항공사집행계획을 마련, 본격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별 사업비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각 지방청에 사업비를 지원, 설계가 완료된 항부터 공사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항별 사업비 배정에서 올해 완공예정인 어항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전액을 배정하고 계속투자항의 조기 완공을 위해 이들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정비확장과 기능제고가 시급한 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투자, 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 시행계획을 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계속투자항의 경우 매물도항을 비롯 초도, 남도 등 25개항에 1,0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현재 어항공사가 대부

분 완료됐으나 시설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덕적항을 비롯 안도, 녹동 등 32개항에도 398억원을 들여 방파제 보강 및 파제제, 물양장 증설 등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도모를 위해 이들 어항시설공사 대부분을 가급적 상반기간에 조기 발주키로 하는 한편 태풍폭기(7~8월) 이전에 주요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화탐지에 적절한 영상처리기

술을 확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용역에서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안육역이용, 연안자원개발, 연안환경보전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측시스템을 개발, 연안변화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위성영상을

통해 통합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을 적발할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보전 및 앞으로 추진될 모든 연안개발이 사전에 합의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위성영상 감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2000년도 항별사업비 배정 내역

#### ■ 계속투자 25개항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명	총사업비	'99까지	잔사업비	2000사업비	비고
일반회계	합계	792,294	507,453	284,841	101,330	
	소계	267,378	132,928	134,450	41,900	
	울도	10,897	7,583	3,314	2,300	91-2001
	풍남	19,957	11,900	8,057	3,500	94-2003
	초도	26,521	15,376	11,145	4,500	94-2003
	남도	21,630	12,969	8,661	3,500	93-2003
	구조라	7,587	5,037	2,550	2,000	97-2002
	삼덕	20,797	11,009	9,788	3,500	94-2002
	광암	12,951	5,474	7,477	1,100	93-2003
	매물도	33,236	13,115	20,121	4,500	93-2004
	보옥	28,568	11,744	16,824	3,500	96-2004
	득암	28,525	10,998	17,527	4,500	94-2003
특별회계	구산	27,252	10,001	17,251	4,500	93-2004
	오산	23,242	11,507	11,735	4,500	93-2003
	전장포	6,215	6,215	-	-	95-98완공
	소계	524,916	374,525	150,391	59,430	
	대변	42,374	23,717	18,657	5,000	87-2003
	시산	22,874	19,964	2,910	2,910	92-2000완공
	지세포	34,448	24,747	9,701	4,000	88-2002
	안목	38,278	26,481	11,797	5,000	91-2004
	수산	42,664	27,068	15,596	5,000	92-2003
	어청도	45,676	34,805	10,871	5,000	89-2002
	소축산	104,112	82,574	21,538	6,790	79-2003
	여서	39,529	26,959	12,570	5,000	92-2002
13개항	수품	22,414	19,984	2,430	2,430	92-2000완공
	축산	24,602	17,519	7,083	4,500	90-2001
	현포	48,931	40,523	8,408	6,000	73-2002
	홍원	15,768	11,803	3,965	2,800	92-2001
	모항	43,246	18,381	24,865	5,000	91-2004

#### ■ 유지·보강 32개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9까지	잔사업비	2000사업비	비고
계	474,497	347,597	126,900	39,809	
덕적	7,456	886	6,570	1,893	
녹동	25,290	20,973	4,317	2,500	
국동	25,327	15,504	9,823	2,500	
안도	9,804	8,013	1,791	1,000	
외포	10,674	9,674	1,000	500	
맥전포	15,485	5,736	9,749	500	
미조	12,714	10,593	2,121	500	
정자	14,192	7,736	6,456	1,000	
거진	11,687	9,338	2,349	1,200	
대진(경북)	7,782	7,027	755	500	
임원	15,392	1,418	13,974	3,000	
남애	7,302	4,250	3,052	1,500	
마량	8,492	8,332	160	160	2000완공
원평	6,370	4,418	1,952	190	
계마	11,742	10,942	800	800	2000완공
청산도	4,665	2,455	2,210	1,300	
서망	12,718	11,938	780	225	
어란진	7,861	7,038	823	600	2000완공
사동(전남)	10,808	10,093	715	715	2000완공
감포	26,757	11,297	15,460	4,000	
구계	7,185	6,255	930	500	
대진(경북)	13,227	10,162	3,065	2,130	2000완공
저동	33,185	26,480	6,705	3,000	
죽변	20,254	9,112	11,142	1,500	
대보	8,092	5,074	3,018	1,000	
양포	23,827	16,423	7,404	1,000	
사동(경북)	19,176	19,126	50	500	2000완공
모슬포	22,710	17,962	4,748	2,000	
신양	19,579	16,860	2,719	2,400	2000완공
위미	28,373	28,261	112	112	2000완공
도두	19,098	18,764	334	334	2000완공
오천	7,273	5,457	1,816	1,200	2000완공

### 연안개발 위성으로 감시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연안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위성영상을 이용, 연안환경 파괴행위 등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

안 개발 일변도로 추진해온 연안에서의 대규모 매립공사와 지역중심의 각종 연안개발사업으로 생태계 변화, 환경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

렀다고 판단, 교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해 무분별한 개발이나 잘못된 이용행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까지 연안변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다시피 육지소규모항이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과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다. 육지소규모항이란 육지 연안의 어촌마을에 위치한 자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어항법상의 지정어항이 아닌 항·포구를 말한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육지소규모항은 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터전인 어업의 근거지로 이용되는 기초어항인데다 지정어항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어촌마을 정주기반이며, 소형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어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88년 수산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던 소규모항 개발업무가 지난해 6월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환원됨으로써 963개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활발한 개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3만척 가까운 어선과 28만명이 넘는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육지소규모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작업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필요한 작업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이다. 솔직히 그동안 육지소규모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반 보편화되지 않은 까닭에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전무한 형편이다.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사 있다고 해도 말 그대로 가장 초보적인 빈약한 자료를 근거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무려 963개나 되는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이 육지소규모항 개발의 전제조건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첨언하자면 기왕에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면 다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전문가관에서 이 일을 맡아 면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육지소규모항이 전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까닭에 자칫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고서를 위주로 현황파악을 하려다간 지역이기주의를 비롯한 과대포장 등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집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내용을 근거로 우선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 뒤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의 순위와 완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다. 개발사업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면서 균형과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육지소규모항은 그 자체의 개발만으로는 개발효과가 반감되므로 제1종 어항 및 제2종 어항과의 연계개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기 위해서는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음을 새삼 밝히고 싶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탄이 없으면 하나의 고체 덩어리에 불과하다. 육지소규모항 개발은 통상 지방예산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이를 합친 총예산이 451억원이었다. 이를 전국 소규모항 숫자로 나누어 보면 1개 소규모항에 투입된 연간 예산의 열악함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줄을 들지 않더라도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안정된 생활향상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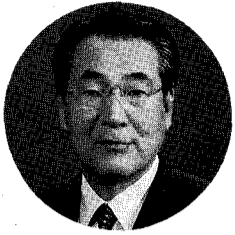
조금 비약해서 말하자면 요즘 벤처니 코스닥이니 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원이 쉽게 거론되는 이 판국에 어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최소한의 배려를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지금이다.

##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바란다

동

정

### 가락동시장 방문 위생관리 당부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31일 새벽 가락동시장을 방문 시장관계자들에게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안정과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2월10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란 회교혁명기념일행사에 참석, 2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1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창립총회 및 기념심포지엄에 참석, 2월15일에는 조선히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 참석, 이어 올림피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 참석, 21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 사회클럽 행사에 참석, 23일에는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24일에는 섬유센터에서 열린 현우회 세미나에 참석, 이어 어민신문사 이사회에 참석, 이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8일 태능스케이프장 개장식에 참석, 12일에는 제1회 전주무술축제 청소년축제 평가보고회에 참석, 14일에는 광주지방법원가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 이어 제81회 전국동계체육대

회 개회식에 참석, 15일에는 2000년 광주비엔날레 준비상황 설명회에 참석, 16일에는 전남도청 이전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이어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 전남 유치위원회 임원급 연석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전남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19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제17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 22일에는 광주전남 경영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5일에는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28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2월8일부터 4일간 송원리조트에서 금광가족연수를 개최, 12일에는 광주은행 이사회에 참석, 14일에는 광주

지방법원가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 15일에는 범죄예방자문위원 정기총회에 참석, 16일에는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 전남 유치위원회 임원급 연석회의에 참석, 22일에는 임방울재단 이사회를 개최, 24일에는 송원물류 주주총회를 개최.

▲정덕용 주식회사삼전사 회장은 2월19일 경기도 평촌소재 한양스포츠허브를 개장, 22일에는 영남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2일 신안군 비금상수도공사현장에 출장, 14일에는 펜싱협회를 방문 선수단을 격려, 16일에는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 전남 유치위원회 임원급 연석회의에 참석.



■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2월14일 가미야 마사후미 일본 수산청 어항부 건설과 계장, 오오마키 세이키 수산청 수산공학연구소 어항시설연구실장, 요시다키 도모후미 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어항어촌 실태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환담했다.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1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어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전남도청 이전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17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22일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참석, 24일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2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9일 재외공관장 초청오찬에 참석, 10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오찬에 참석, 15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5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4일 경기도 매송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 출장, 17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2월10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이 전**

▲해양수산부는 2월24일부터 27일까지 청사를 이전한다.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동아일보사 옥 7-16층. 대표전화 : 3148-6114, 어촌어항과 : 3148-6850-7

**의 즉**

▲정덕용씨 (주식회사삼전사 회장)의 차녀 호연 양은 2월 25일 12시 천주교역삼동교회에서 화족을 밝힌다.

**신 권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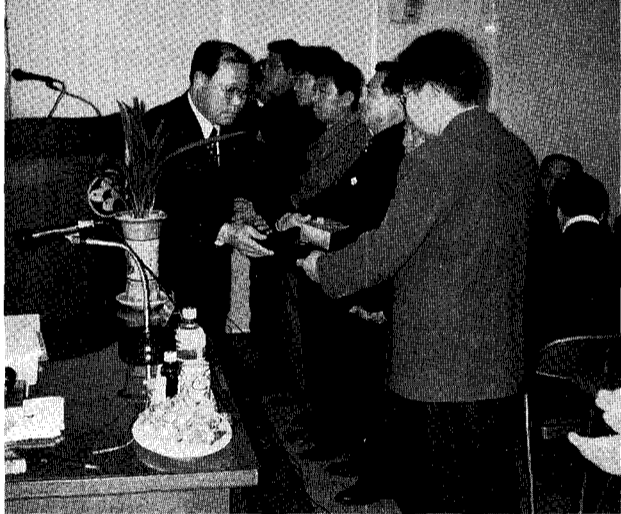
**인 사**

▲해양수산부 □이사관 승진 △감사관 김성규 △안전관리관 서정호 △해양정책국장 이용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은 □부이사관 승진 △어촌어항과장 이진호 △양식개발과장 심호진 △어선노정과정 민경태 △해양보전과장 이용수 □서기관 승진 △행정관리담당관실 부원찬 △해양정책과 박경철 △항만개발과 이상억 △수산정책과 최익영 △자원관리과 박준영 △기술안전과 이병호 박준권 △해사기술담당관실 김규섭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과전 △국장급 이광로 △과장급 선원표 □과장급 △장관비서관 우예종 △해양정책과 해양환경과장 임광수 △어업자원국 국제협력과장 유상정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최근 '바다여 빛나라' (부제: 전환기의 한국어어업)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우리나라 수산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의 미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주식회사대아건설(사장 이정균)



■ 어항청소선 905호 하용만 선장은 지난 13일 1999년도 통영항 바다청소사업과 관련, 근해통발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항만건설시 시민위락기능도

###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용역추진

정부는 쾌적한 항만환경을 조성키 위해 항만건설시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 친수공간개발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항만환경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경관형 항만시설 설계기술을 비롯 친수형 방파제 및 호안 구조형식을 개발하는 등 항만공간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항만공사에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동시에 준설토 등 해양

폐기물의 활용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에 따라 해양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간석지 및 식생지 조성 등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청정해역 조성을 위해 주요 항만에 해수정화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용역중인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항만개발기본계획이 마무

리되는대로 주요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에 나서기로 하고 여수구항 등 일부항에는 이미 친수공간확보를 위한 시범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해양환경보전은 물론 화물유통기능 및 시민위락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종합항만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한·중 대규모 해저터널 건설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대규모 해저터널건설이 검토되고 하와이 공해상에 대단위 해양목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한

·중해저터널건설을 비롯 하와이 공해상 대규모 해양목장건설, 국립해양박물관건립 등 5건을 주요 신규과제로 발굴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중이며 오는 4월중 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이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3.13 - 18 3.21 - 25	선유도 격포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3.6 - 25	정기수리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3.6 - 11 3.20 - 25	녹동 홍남, 시산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3.6 - 11 3.20 - 25	국동 물산, 안도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3.6 - 25 3.27 - 4.1	정기수리 삼덕, 통영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3.6 - 10 3.20 - 25	포항연안 구계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3.6 - 25 3.27 - 4.1	정기수리 주문진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바다환경보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몰래 버린 오늘

캠 페 인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공유수면매립 환경훼손 최소화

연안정비도 환경친화적으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을 국토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매립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연안시설물의 안정성도모를 위해 전국연안에 친수공간조성 등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수면과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정책 및 연안정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개발기 위해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공유수면이 해양환경·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매립전후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 환경친화적 공유수면 매립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사업과 지자체 및 민간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토지확보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된 연안을 정비, 연안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복원해 쾌적한 연안공간을 조성키로 하고 올해 중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대적인 연안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보전사업과 연안해역개선사업, 휴식공간조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으며 해안보전사업의 경우 지방

동해 추암지역 관광지 개발

망양해수욕장에 2만평의 관광단지 추가 개발되고 동시에 추암지역4만평이 관광지 새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강원도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릉 태백권 연안지역의 관광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에

및 호안 신·개축 등 국토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해변공원이나 마리나 설치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대거 추진하고 해역정화 등 연안환경조성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는 기본계획변경 요청에서 망양해수욕장의 관광개발 면적을 당초 20만 9천평에서 22만 9천평으로 확대하고 동해시 추암지역에 새로 4만 2천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소 등 전국 67곳에 수산물종합판매장 건설키로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에 일본과 공동으로 대규모 수산자원조사센터를 건립키로 한 데 이어 서울 종로를 비롯한 67개 지역에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자원증강 및 이용극대화를 도모기 위해 일본과 공동으로 제주지역에 대단위 수산자원조사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일본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반기중 설계작업에 착수, 오는 연말쯤 조성센터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사센터를 부지 100만평에 연면적 4만평 규모로 건설키로 했으며 사업비 분담방식은 우리나라는 부지매입비와 일부시설비, 일본측은 시설비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수급 및 공급 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기 위해 서울 종로를 비롯한 전국 67개 지역에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종로를 비롯한 25개소에 종합판매장을 건설하고 부산 6곳, 인천 6곳, 대전 4곳, 광주 4곳, 대구 6곳 등에 종합판매장을 각각 건립키로 했다.

또 울산의 경우 중구 등 3곳에 수산물종합판매장을 건설하는데 이어 경기 16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2곳, 전북 5곳, 전남 4곳, 경북 3곳, 경남 4곳, 제주 2곳 등에 종합판매장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이들 67개 수산물종합판매장에는 모두 2천억원 정도가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올해 日本 어항예산 2,199억엔 수산예산의 61.9%

어항어촌활성화대책사업 신설

2000년도 일본예산안이 최근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8% 증가한 84조9,871억엔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제신생특별법 위 및 생활관련 등 공공사업 중점법위를 포함한 수산관계 일반회계예산총액은 3,554억 6,700만엔이다.

시책면에서는 ①수산자원 회복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정책의 강화 ②신해양법 질서에 대응한 단속체제의 정비 ③수산자원의 적극적 조성 ④수산자원 지속적 이용 추진 프로젝트의 추진 ⑤어장환경보전대책의 추진 ⑥어업경영대책의 충실 ⑦수산물의 적절한 소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품질향상·안전확보 ⑧어업지역의 활성화 ⑨수산기반정비의 새로운 전개 등에 관한 중점대책 항목이 모두 인정되었다.

올해 일본의 어항어촌 관련 예산은 모두 2,199억 4,500만 엔으로 수산예산의 61.9%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어항어촌활성화 대책사업'이 새로 추가되어 15억 9,200만엔이 계상되었다.

중점사항으로는 수산물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제의 정비를 위해 우선 수산물 생산유통기반의 강화를 꾀하기 위한 수산기반의 연계강화에 따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산시책 공동프로젝트에 소프트사업을 추가하였다. 임항도로·안벽시설, 조명시설, 어항정화 시설, 수질강화시설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풍력·태양광 등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의 정비와 함께 종합적 계획의 케이스 스터디 등 차기장기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수산업의 진흥을

책으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해 풍요로운 자연과 풍토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만들기에 따른 도시와의 공생을 추진하는 어촌공간정비사업을 신설했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어촌의 어항정비를 새로이 실시한다.

어항해안예산은 지난해의 태풍 18호에 의한 피해가 감안되어 안전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방재·국토보전이 긴급하다고 판단, 162억 8,100만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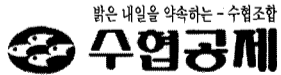
신규 중점사항으로는 자연이 풍부한 해안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치산사업과 연계한 '자연이 풍부한 바다와 숲의 정비대책사업'을 신설했다.

그리고 재해복구예산은 4억 8,600만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7.7%가 증액되었다.

2000년도 일본 어항관계 예산안 개요

(금액단위 : 백만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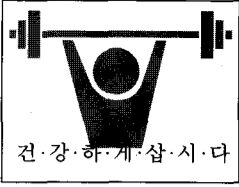
구분	99당초 예산 (A)	2000년도 예산안					합계 (B)	전년비 (B/A)
		통상분	생중점화법	활용화대응분	특별법위	환경등분		
I. 어항어촌정비	199,928	191,316	6,472	812	2,323	9,607	200,923	100.50
1. 어항정비	161,743	155,205	4,376	812	1,944	7,132	162,337	100.37
어항수축사업	116,931	111,832	3,596	812	1,410	5,818	117,650	100.62
어항개수사업	34,529	33,896	780	0	534	1,314	35,210	101.97
어항국부개발사업	10,283	9,477	0	0	0	0	9,477	92.16
2. 어항어촌환경정비	19,206	17,920	1,765	0	379	2,144	20,064	104.47
공해방지대책사업	60	155	0	0	0	0	115	191.67
어항환경정비사업	3,256	3,203	0	0	379	379	3,582	110.01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15,890	14,602	1,765	0	0	1,765	16,367	103.00
3. 어항어촌종합정비	6,574	6,341	331	0	0	331	6,672	101.49
어항어촌종합정비사업	5,493	5,163	331	0	0	331	5,494	100.02
어항이용조정사업	1,081	1,178	0	0	0	0	1,178	108.97
4. 어항관련도로정비	4,285	2,654	0	0	0	0	2,654	61.94
5. 기타(조사비 등)	8,120	9,196	0	0	0	0	9,196	113.25
II. 어항해안	16,022	15,462	706	0	113	819	16,281	101.62
1. 해안보전설비정비사업	10,385	10,011	450	0	80	530	10,541	101.50
2. 해안환경정비사업	4,422	4,198	256	0	33	289	4,487	101.47
3. 공유지조성호안등정비사업	148	186	0	0	0	0	186	125.68
4. 기타(조사비 등)	1,067	1,067	0	0	0	0	1,067	100.00
III. 재해복구	413	486	0	0	0	0	486	117.68
어항어촌활성화대책사업	0	1,592	0	0	0	0	1,592	-
NTT-A	1,011	663	0	0	0	0	663	65.58
계	217,374	209,519	7,178	812	2,436	10,426	219,945	101.18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 이연가는 물을 많이 마시고 미역초무침을 자주 먹어야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이나 타르같은 유해물질은 소위 몸의 청정 작용에 의해서 배뇨라는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키려면 물을 마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손쉽다.

따라서 담배를 수없이 피우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니코틴같은 유해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같은 공복시에 담배를 피울 때도 물을 마셔 두면 그 해를 적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니코틴은 폐로 들어갈 뿐 아니라 타액에 녹아서 위로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니코틴이 위의 가스 트린 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자극해서 높은 산도의 위액을 분비시키는 것이다. 또 공복시에 높은 텅 비어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도의 위액을 분비할 수가 없어서 자극 작용을 일으켜 위궤양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혈중에 녹은 니코틴의 작용으로 위벽의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 위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공복시의 담배는 위에 있어서는 강렬한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 분비되는 위산의 양이 많으면 십이지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십이지장속은 알카리성으로 보통의 위산이라면 중화시켜 버리지만 고산도의 위산이라면 중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산에 의해 위벽이 손상되고 십이지장 궤양이 될 수도 있다.

공복시의 담배는 이렇게 나쁜데 그것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 결국 물로써 고산도의 위산을 중화시킬 수가 있고 위나 십이지장이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위산을 점점 앞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다. 거기가 또 물보다 이온수, 즉 스포츠 드링크 쪽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서 오줌을 많이 누면 칼슘도 함께 잃게 되므로 그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로는 바나나, 사과, 표고버섯, 시금치, 해초 등이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좋다.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이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미역을 된장국에 골잘 사용하는데 오이같은 것과 함께 식초 무침으로 해도 아주 좋을 것이다.

미역의 초무침이 니코틴에 의한 동맥 경화의 해를 막아준다. 미역같은 해초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은 혈관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나트륨, 칼슘, 인, 철분 등 미네랄도 많아서 체내의 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니코틴이 끼치는 악영향을 적게 해줄 수가 있다. 한편, 식초에는 염분이 거의 없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부착되는 것을 막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결국 미역 초무침은 굉장히 몸에 좋은 요리인 것이다.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기회 있을 때마다 먹으면 좋은 식품이 바로 미역 초무침이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40]

## 第3章 基礎工

### 3.6.4 합성섬유매트 및 범포

(1) 표준적인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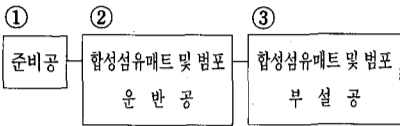


그림 3.6.5 합성섬유매트 및 범포 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합성섬유매트 및 범포 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3.6.5에 도시한다.

(2) 시공방법

① 준비공

일정한 크기로 가공된 범포를 작업장에서 퍼서 재질이나 치수의 검사를 한다. 수중작업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포갠쪽을 범포에 명시한다. 또 염화비닐파이프 등을 감아서 취급하기 쉬운 원통모양으로 해준다.

② 운반공

원통모양의 범포를 태선에 적재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한다.

③ 부설공

운반된 범포는 크레인이 부착된 태선 등으로 소정의 위치에 매달고, 잠수작업으로 부설한다.

해저에 명시된 위치에 범포의 한쪽을 고정시키고, 원통모양의 매트를 굴러서 부설해 간다. 범포의 고정엔 T자형의 핀을 박아 고정하는 동시에 돌이나 블록 등으로 보강하여 뜨거나 유실을 방지한다. 포갠쪽은 표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한다.

### 3.6.5 매트유의 시공관리

(1) 재료

아스팔트매트는 대체로 현지에서

제작된다. 범포, 합성수지계매트, 합성섬유매트는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현지에서 가공한다.

아스팔트매트의 표준배합은 표 3.6.1 및 표 3.6.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6.1 세굴·흡출방지용 매트의 표준배합

재료	중양비	사용재료
아스팔트	10~14%	KS에 적합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40~60, 60~80, 80~100 및 불른 아스팔트의 10~20, 20~30, 30~40의 어느 것과 혹은 이것을 혼합한 것으로 하고 침입도는 25~60으로 한다.
조골재	25~40%	KS 쇄석규격의 6호 또는 7호로 하고, 7호쇄석은 2.5mm이상의 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세골재	30~50%	먼지, 이토,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청정한 모래, 쇄석 및 필라 중 0.074mm체에 잔류하고 2.5mm를 통과한 것.
더스트	14~25%	모래 및 필라 중 0.074mm체를 통과하는 것.

표 3.6.2 마찰증대용 매트의 표준배합

재료	중양비	사용재료
아스팔트	10~14%	KS에 적합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40~60, 60~80, 80~100 및 불른 아스팔트의 10~20, 20~30, 30~40의 어느 것과 혹은 이것을 혼합한 것으로 하고 침입도는 25~60으로 한다.
조골재	30~50%	KS 쇄석규격의 5호, 6호 또는 7호로 하고, 7호쇄석은 2.5mm이상의 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세골재	20~50%	먼지, 이토,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청정한 모래, 쇄석 및 필라 중 0.074mm체에 잔류하고 2.5mm를 통과한 것.
더스트	14~25%	모래 및 필라 중 0.074mm체를 통과하는 것.

## 생활정보

### 1. 약혼

가.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나.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다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라.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은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는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 2. 혼인

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 가족법 해설 <1>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친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것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라.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마.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다.

바.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사.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매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3. 사실혼

가.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 마. 혼인신고 없는 아내의 권리는 혼인신고 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생활정보